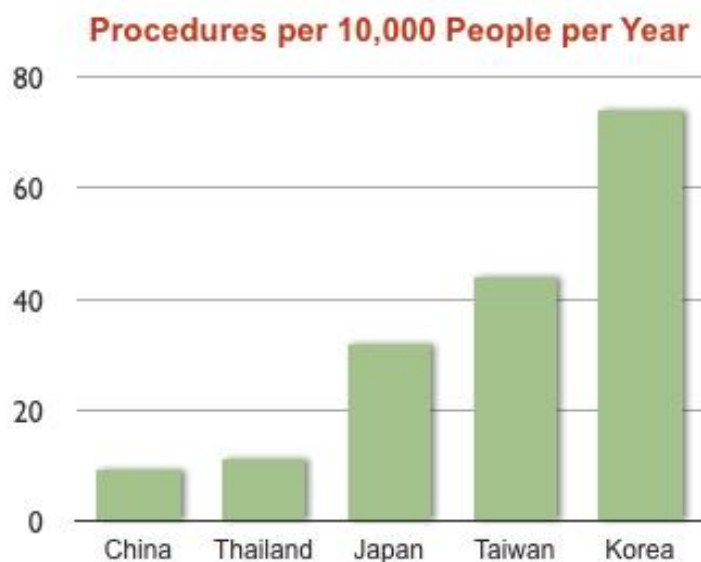


성형수술 관련 국제 통계 자료

Asian Plastic Surgery Guide's Highest Plastic Surgery Rates for 2009



Country	Total Procedures	Total Population	PP10K
South Korea	365,000	49,232,000	74
Brazil	1,054,000	193,000,000	55
Taiwan	103,000	22,929,000	44
United States	1,300,000	309,000,000	42
Japan	411,000	127,288,000	32
Thailand	76,000	65,500,000	11
China	1,215,000	1,322,000,000	9
India	683,000	1,184,000,000	6

PP10K = procedures per 10,000 people of all ages per year

첨부자료도 참조

- 국제미용성형외과의사협회 2011년 조사 자료(ISAPS International Survey on Aesthetic/Cosmetic Procedures Performed in 2011)

Sherry Dingman , Maria E. Melilli Otte & Christopher Foster (2012): Cosmetic Surgery: Feminist Perspectives, Women & Therapy, 35:3-4, 181-192

미용 수술 : 페미니스트 관점

○ 미용성형 수술 발달로 제기되는 질문들

- 얼굴과 몸을 성형하면 그들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인가?
- 외모는 추상적 자아를 반영하는가, 미용 수술은 거울 속의 자아와 내면의 자아의 괴리를 만드는가?
- 미용수술은 단지 립스틱을 바르고 마스카라를 하는 것의 연장선인가?
- 미용수술은 근본적으로 화장품 및 화장기술과 근본적으로 다른가?

○ 미용성형의 동기는 무엇인가?

- 젊을 때의 아름다움을 되찾는다면 새로운 사랑을 만나거나 현재의 사랑을 지속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걸까?

○ 냉정한 현실

- 이러한 여성의 희망을 무시하기에는 현실은 다르게 돌아간다 : 실제로 요즘은 표피적 이미지가 승리하는 시대다
- 하지만 성형수술을 한 여성을 좋아하는 남성의 시선에 맞출 필요가 있을까?

○ 드러나는 현상들

- 고고학적으로 보았을 때 여성은 외모에서 생산의 능력과 건강이 보여지도록 노력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 사회심리학적 발견 : 사람들은 행복, 지성, 성공 등을 매력적인 외모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미용성형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현실들

- 평균 수명이 늘어가고 여성의 수명이 남성의 수명보다 더 늘어감에 따라, 나이 들어서도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우리는 미, 생식, 젊음이 상호 긴밀히 관련된 세대를 살고 있다.
- 나이 든 여성이 젊은 남성 파트너랑 사귀면 “약탈자”로 인식되는 문화

○ 의료 관광이 증가함에 따라 제1세계에서 미용성형의 욕구는 더욱 증가

○ 아프리카에서도 미용성형은 증가하는 추세

- 가난한 흑인 여성에게 성형의 기회를 주는 재단도 존재

-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성행

- 브라질에서는 가난한 이들도 아름다워질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미용성형이 확장

- 미의 기준이 백인, 미국형에 맞추어지고 있는 추세

- 하지만 광고는 문화적 취향을 존중하며 조화로운 변화를 추구한다고 강조

- 주요한 마케팅 및 정당화 논리 : 자아 존중감 증가, 여성의 선택할 권리

-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페미니스트의 구호를 상업적으로 전유함

- 미용성형은 몇십년간 성장해온 미용산업의 한 부분 : 미용산업은 소비자 페미니즘을 양산하며 자신의 입지를 구축

- 미용성형을 수행한 이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일까? 미디어 등에 의해 생산된 논리에 의해 강제된 것일까?

- 미용성형이 대세가 되어가고 오히려 ‘정상’이 되어가는 사회에서

- 보톡스, 치아 미백 등까지 포함하면 미국 여성의 반 이상이 평생 중 미용성형 기술을 받아보길 기대한다는 통계도 존재

- ‘정상’의 기준이 바뀌는 것, 예외적인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바뀌는 것

-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더 싸게, 더 짧은 시간에, 더 마취하지 않고 하는 기술이 퍼져감 : 경제적 장벽도 완화되어가는 현실

- 비판의 지점들

- 노년의 모습이 가지고 있던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버림 : 지혜, 경험 등의 상징으로서의 노년의 외모

- 미용성형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 관점 이동 : 미화 자체에 대한 비판에서 자아 정체성에 대한 개입이라는 지점으로 이동

- 의학에 판단과 결정을 맡길 것인가? : 외모의 특징도 병으로 만드는 사회

- 반비판

- 현대 과학기술에 의한 몸의 변형은 하나의 변화될 수 없는 경향 : 자연에서 인공으로

- 미와 육체적 재화의 민주화라는 접근도 존재